

### 〈Questions〉

1. Please re-read John 3:16-17 and Luke 2:8-20. What parts of the Christmas story and message stand out to you? Does this message comfort you or challenge you?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it difficult for you to connect with the message? If so, please explain.
2. What can you do to help remind yourself of the message of Christmas throughout this season and within the upcoming new year? Individually or as a family? What can you do not to forget the gift of Jesus every day of the year?
3. How can you and your family serve and love others this Christmas and the upcoming new year? Is there someone you know that needs to hear the Gospel message? Is there someone that needs prayer or comfort? Is there someone with physical needs that need to be met? I encourage you and your family to make a list of 2-3 items for you to act upon this Christmas season and the new year.

### 〈질문〉

1. 요한복음 3:16~17, 누가복음 2:8~20 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나 메시지가 있나요? 그 말씀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시나요?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보고 싶은가요? 혹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2. 올해 연말을 지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 되심을 매일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성탄절과 새해를 맞으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나요? 기도나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지는 않나요?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즌에 개인 혹은 가족이 할 수 있는 2~3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 2019 Christmas Family Worship Devotional

그레이스한인교회  
2019 성탄절  
가정예배 순서지

### 〈Prayer and Meditation〉

Living God, thank you for loving us and sending your Son into the world. At this time, would you please open up our hearts so that we may receive grace from your Word. Help us to focus on the one that was born in Bethlehem to redeem us from the powers of sin and death so that we may have life. Help us to remember your promises so that we may live our lives in the anticipation of the fullness of your Kingdom.

### 〈기도와 묵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시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장차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 〈Hymns〉

Hark the Herald Angels Sing (126- Morning)  
Silent Night, Holy Night (109-Night)

### 〈찬 송〉

천사 찬송하기를 (새찬송가 126 장 - 아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새찬송가 109 장- 저녁)

## The Heart of Christmas

(John 3:16-17; Luke 2:8-20)

We begin this Christmas with a simple story :

Bobby was a special-education boy. He was just bright enough to remain in a regular classroom but was still noticeably different. He was constantly made fun of by his classmates, but he never seemed to mind. Every day, as the neighbourhood kids walked home from school, Bobby's mother would look out the window to see them all laughing and joking together – all except Bobby. He was always walking behind the others, all alone.

One day Bobby burst into the kitchen after school. "Mom, guess what?" he said. "Valentine's Day is two weeks away, and our teacher said we could make valentines and give them to the other kids in our class!" His mother's heart sank as she pictured yet another opportunity for Bobby to be excluded. "Mom," Bobby continued, "I'm going to make a valentine for every person in my class!" "That's very nice, Bobby," his mother answered, fighting back the tears.

Over the next two weeks, Bobby worked every afternoon on those valentines. They were truly labors of love. When the big day finally came, he was so excited about taking his valentines to school that he couldn't eat breakfast. But he was also a little worried. "I hope I didn't forget a single person," he said as he dashed off to school.

Bobby's mother prepared herself to comfort her son when he returned home broken hearted from the valentine exchange. She knew how disappointed he would be with the response he got from the other children. That afternoon, she saw the same neighbourhood kids walking home together. Behind them, all alone, was Bobby. Bobby's mother turned away and placed a plate of cookies on the table. Much to her surprise, Bobby came through the door with a huge smile on his face. "What is it, Bobby?" she asked. "How did it go? Did you get any valentine cards?" With a shout of pure joy, Bobby said, "NO!" Bobby's mother was shocked at his answer. Bobby responded, "But guess what Mom! I didn't forget a single person!"

At the centre of Jesus' birth is the message that we see in John 3:16-17. The heart of the Christmas message is that God gave his only Son to die and sacrifice himself for us so that we may have life. This is Bobby's message. Bobby selflessly gave himself to his classmates even when nothing was extended back. This is agape love. This is the love of God. This is Christmas.

And so what shall be our response? We need to reflect this truth in our own lives. I believe that many of us have too much and are too self-centered. This is a horrible combination. However, we are called to give ourselves as Christ has given himself to us. We need to serve others and love others as Christ has come to serve and love us. We can only do this because God has first loved us.

This Christmas, I pray that we remember again the powerful truth that salvation has come through Christ's birth. AMEN. But also, I pray that we may seek out ways in which we can serve and love others as Christ has given himself to us. I pray that we all are a little more like Bobby.

Merry Christmas!

## 성탄절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

(요한복음 3:16-17; 누가복음 2:8-20)

한 이야기로 이번 성탄절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비는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는 일반 학급에 있어도 될 만큼 밝은 아이였지만 다른 학생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반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그다지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동네 이웃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바비의 엄마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웃고 농담하면서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바비는 그 무리 속에 없었습니다. 바비는 항상 그 아이들 뒤에서 혼자 걸어왔습니다.

어느 날, 바비는 방과 후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있잖아." 바비가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2 주 후에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타인 카드를 반의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줘도 된다고 하셨어요." 바비 엄마는 바비가 또 외면당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반 애들 모두에게 발렌타인 카드를 만들어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 후, 2 주 동안 바비는 매일 오후에 발렌타인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왔고, 바비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학교에 가져갈 생각에 흥분한 나머지 아침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비에게는 작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빼먹은 사람이 없겠지?" 바비는 그렇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바비가 학교 친구들과 발렌타인 카드를 나누는 후에 겪게 될 낙심을 생각하며 아들을 위로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아이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바비가 받을 실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엄마는 무리를 지어 걸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뒤에서 바비는 여전히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뒤돌아서서 식탁 위에 과자 한 접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바비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니? 발렌타인 카드를 받았니?" 기쁨을 담은 목소리로 바비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바비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이어서 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있잖아. 내가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모두에게 카드를 나눠줬어요!"

요한복음 3:16~17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비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바비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삶은 참으로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주도록 부르심 받았습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셨기에, 우리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능력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기회를 찾으시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조금 더 바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